

# 효성, 첨단 박막소재 개발 본격화

## 재료연구소와 공동개발 MOU 체결 ... 용·복합분야 첨단소재 개발도

효성이 기능성 필름 및 태양전지 핵심소재 등 첨단소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효성기술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재료연구소(소장 조경목)와 3월16일 재료연구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첨단소재 분야의 연구원 교류와 공동 연구과제 추진,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기능성 필름과 박막형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 등 첨단 박막소재 개발 및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막소재 외에도 금속과 세라믹, 용·복합 분야의 첨단소재 개발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재료연구소 조경목 소장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박막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효성기술원과의 협력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6>